

뉴실버세대 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의복스타일

한 상 지·하 지 수*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수료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요 약

본 연구는 기존의 실버세대와 다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을 지닌 65세-75세를 뉴실버세대라고 정의하고 뉴실버세대 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을 건강관리, 재테크, 여가활동 및 사회/봉사활동, 의복스타일 및 외모관리 차원에서 실증적 고찰을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뉴실버세대 이전과의 라이프스타일 및 의복스타일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뉴실버세대 여성의 라이프스타일 및 의복스타일에 대한 기초연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중산층 이상의 경제력이 있는 뉴실버세대 여성으로 문화소비를 하고 백화점에서 의복쇼핑을 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면접 대상자들은 연령과 거주 지역, 쇼핑장소를 기준으로 목적표집과 스노우볼 모집법을 병행하여 모집하였고 서울, 경기, 대구 등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65-75세 여성 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뉴실버세대 여성들은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고 있었으며, 아직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나 재테크를 통해 노후 준비를 마친 상태이며, 경제적으로 자립심이 높은 상태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여가활동으로 문화소비의 수준이 높았다. 뉴실버세대 이전과 비교하여 라이프스타일 측면에서는 더욱 여가지향적으로 변화되었으며, 신체적 노화는 모두 인지하지만 심리적인 노화는 전혀 경험하지 않았거나 소수는 우울감 또는 편안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복스타일은 유행은 고려하지 않되 단정하고 기본에 벗어나지 않으며 편안한 의복스타일을 추구하고 평상시와 여가활동 시 의복을 장소에 맞춰 다르게 착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뉴실버세대 이전과의 의복스타일의 변화는 체형이 변하지 않는 한, 대부분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 나이보다 인지적으로 본인을 더 젊게 생각하고 있어 이와 같은 연소화 현상으로 인하여 뉴실버세대 이전과 동일한 스타일을 추구하고 젊음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로 비추어졌다. 뉴실버세대 여성들이 실제 인지하는 연령이 5-15세가량 낮게 지각하고 있으므로 국내 의류산업에서는 50대를 타겟으로 한 의복스타일과의 경계가 나타나지 않게 스타일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뉴실버세대, 라이프스타일, 여가활동, 의복스타일, 성공적 노화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BK21플러스 의류패션 전문 창조 인재 양성 사업팀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임.

+교신저자: 하지수, jisoocha@snu.ac.kr

접수일: 2017년 6월 1일, 수정논문접수일: 2017년 8월 29일, 게재확정일: 2017년 9월 5일

I. 서론

과학기술 발달로 인한 경제·사회발전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우리나라 포함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한국은 2000년 이후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7.2%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14.3%,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Statistics Korea, as cited in Im, 2014). 최근 뉴스보도에 의하면 서울시는 지난 2013년 10% 수준이었던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19년 14%대로 증가해, 처음으로 고령 사회가 되고, 2026년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를 맞게 된다고 분석하고 있고 201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657만명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렇게 노년층의 인구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는 과거와 다른 사고와 생활 방식을 가지는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다(Kwon, 2016).

현재 노인 소비자 시장을 구성하는 노인들은 개인의 제정상태뿐 아니라 사고방식, 태도, 가치 그리고 자아인식에 있어서 과거 노인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Lazer, as cited in Gunter, 1998/2010). 노인층의 의식수준과 경제수준의 향상에 따라 삶에 대한 질적 요구와 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과거의 실버세대와 다른 성향을 가진 노인층을 뉴실버세대라고 칭하고 있다. 뉴실버세대들의 태도, 사고방식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은 훨씬 더 젊고 훨씬 더 사치스러운 방향으로 변화해가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일 자리를 개척하고 스포츠, 여행 등 건강 증진과 여가를 위한 동적인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대한민국 시니어 리포트(Kyobosaengmyung & Seniors partners, 2011)에 따르면 최근 세시봉, 7080을 주목했는데 이는 지금껏 소외되었던 시니어 세대가 문화적 주권을 되찾으려는 현상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평균 수명이 80세 이상으로 늘어나고 기대

수명이 100세에 가까워지자 문화적 주도권에서 멀어졌던 라이프 사이클 변화의 시작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시니어 역시 즐기고 생활할 권리를 되찾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이처럼 뉴실버세대들은 과거에 비해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성향을 가진 세대이다. 그러므로 뉴실버세대들은 이전 세대와 비교하여 복식 문화에도 이전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시니어 세대의 문화와 소비를 세분화하여 고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전과 다른 뉴실버세대의 문화와 소비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가활동과 사회활동 그리고 의복스타일까지 아우르는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세분화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인구 통계청(U.S. Census Bureau) 2015년도 자료에 의하면 노년층 인구를 65세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OECD에서 노동 연령을 15-64세로 지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기초노령연금법 등에서는 고령자를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Shin et al., 2012). 뿐만 아니라, UN에서 정의한 고령화 사회의 기준이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이며(Hwang, 2014), 현재 국내에서 각종 복지정책의 기준이 되는 노인 연령 기준이만 65세이다. 또한, 1946년에서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사이에 태어난 전후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가 2010년부터 65세 이상의 실버세대 진입하면서 그 차이가 확연히 들어나는 새로운 노인의 기준점이 되고 있다(Kim & Park,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소노인에 해당하는 65세-75세를 뉴실버세대라고 정의하고 65세-75세의 라이프스타일 및 의복스타일에 대한 기초연구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뉴실버세대 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심층 면접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뉴실버세대 진입 이전인 10년 전과 비교하여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의복스타일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뉴실버세대를 타겟으로 한 시장은 세대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은 여러 연구

들에서 강조되고 있는데, 뉴실버세대의 다양한 특성을 근거로 하여 뉴실버세대의 시장을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뉴실버세대를 정의 내리고 그 특성에 근거하여 뉴실버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한다. 둘째, 뉴실버세대에 진입하기 이전의 10년 시기와 비교한 심리적, 신체적 변화를 분석한다. 셋째, 뉴실버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의복스타일 및 외모관리의 변화를 알아본다.

II. 이론적 배경

1. 실버세대와 뉴실버세대의 개념 및 특성

국제 노인학회에서는 노인을 환경 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자체 조직에서 결손이 있는 사람, 자신을 통합하려는 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 인체기관이나 조직 기능에 쇠퇴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생활 적응성이 정신적으로 결손 되어 가는 사람, 그리고 조직 및 기능 저장의 소모로 적응 또는 감퇴 현상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Kim, 1983). Breen(as cited in Gunter, 1998/2010)은 노인을 생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변환기에 있는 사람, 심리적인 면에서 성격이나 정신 기능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사회적 관계가 과거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실버세대의 범위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배경과 전통에 의하여 다양한 영향을 받으므로 그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Kwon, 2012). Riche(as cited in Gunter, 1998/2010)는 ‘연소노인’(65-74세), ‘노인’(75-84세), 그리고 ‘고령노인’(85세 이상)으로 연령에 의하여 실버시장을 구분하였으며, 65-74세에 해당하는 ‘연소노인’은 건강과 돈

을 모두 갖추고 휴일, 여행과 같은 재화와 서비스에 잠재적 수익성을 지닌 시장이라고 하였다. 또한 시니어 시장은 다양하게 세분화된 시장의 집합체로 알려지는데, 이는 연령증가에 따른 신체 변화, 자신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가족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기호 변화, 그리고 시대 변화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Murata, 2004/2005). 이는 즉, 연령에 따른 신체 변화는 신체 기능의 약화와 외모 노화를 의미하고 라이프스타일 변화는 인생에서 어떤 특정 단계로의 변화를 또, 가족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는 자녀의 출가와 같은 변화를 의미한다. 기호 변화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과거에 좋아하던 것에 대한 취향의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으며, 또한 시대 변화로 인한 유행이나 생활환경이 변화함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니어 시장은 확실적인 매스마켓과는 다른 세분화된 시장으로 접근하고 연구해야한다.

최근의 고령자는 신체적으로 건강이 강화되면서 평균수명이 연장되었고 사회활동에 대한 열망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 이들이 뉴실버세대라고 하였고(Kim, 2009), Seo(2004)는 뉴실버세대는 과거의 실버세대보다 경제력 향상으로 구매력이 있으며,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여생을 즐기고 자립적 가치관을 가진 실버세대 계층의 형성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Bae and Ha(2017)는 한국의 미래 의생활 예측을 델파이 기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미래 의생활 주요 트렌드로 실버 중심을 밝혔으며 하위 트렌드로는 실버세대를 위한 의류산업의 활성화로 정리한바 있다. 이와 같이 과거의 실버세대와는 달리 신체적, 경제적 수준이 향상되고 심리적으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뉴실버세대는 그들만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고찰하고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뉴실버세대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1946-1964년)가 고령화되면서 전통

적인 노인 상에서 벗어난 세대를 의미한다(Kim et al., 2006). 1946년에서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전후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가 2010년부터 65세 이상의 실버세대 대열에 들어서면서 이전의 실버세대와의 가치관 차이는 확연히 나타나고 있는데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건강도 강화되면서 사회활동에 대한 열망이 더욱 높아진 노인층이 뉴실버세대라고 하였다(Naver dictionary, as cited in Kim & Park, 2012). Kim(2008)은 현재의 뉴실버세대는 이전의 실버세대와 한국의 6·25전쟁 이후인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사이의 세대라고 하였으며, Im(2014)은 베이비붐 세대이면서 2018년 이후 고령 사회의 본격 구성원이 될 50세-64세라고 하였고 Back and Byun(2011)은 66세-75세(1951년-1942년생)를, Kim and Park(2012)은 60세 이상으로 뉴실버세대를 지정하여 각 연구들마다 연령의 범위를 상이하게 지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뉴실버세대를 UN에서 정의한 고령화 사회의 기준 및 노인복지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을 고려하여 고령자에 해당되는 65세부터 75세까지로 지정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한 실버세대와 뉴실버세대의 차이점을 정리한 결과는 아래의 <Table 1>과 같다(Dong-A Ilbo & Shinhan bank reaseach, as cited in Kim & Park, 2012).

2. 뉴실버세대의 라이프스타일

라이프스타일이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서 개인마다 독특한 삶의 양식을 의미하며, 개인의 가치, 동기, 감정, 개성, 인구 통계적 특성, 가족, 준거집단, 사회계층, 문화 등을 모두 반영한다(Lee et al., as cited in Ahn et al., 2014). 라이프스타일의 특징은 문화적이라는 사실이며, 여가 및 소비행위의 일부 인 삶의 영역으로 일련의 실천과 태도라고 정의되고 있다. 라이프스타일에 기초하는 소비는 모든 종류의 사회적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Chaney, 1996/2004) 특히 노년층의 소비는 다른 연령층보다 더 여가의 성격을 띄는 것으로서 은퇴를 하면 여유시간이 많아지고 이는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쇼핑스타일 역시 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Webley et al., 2002/2009). 이와 같이 노년층의 라이프스타일은 여가의 성격을 띄고 이는 의복스타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뉴실버세대의 의복스타일을 알아보기에 앞서 개인의 가치나 취향, 생활양식의 전반이 반영된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뉴실버세대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지니며, 자녀의 수가 적고 높은 소비지출이 생활화 되어 있다. 이는 소비성향에 있어서도 가족보다 나 자신을 위

Table 1. 실버세대와 뉴실버세대의 차이점.

	실버세대	뉴실버세대
이미지	완고함, 보수적	밝고 유연함, 합리적, 긍정적
삶의 태도	검소하고 소박, 한정된 취미생활	여유와 즐거움, 다양한 취미생활
독립성	자녀에게 의존	자녀와 동거 거부
노후설계	무계획, 자녀에게 의존	계획된 노후설계로 독립추구
가치관	세대 간 단절, 변화에 대한 거부	변화에 개방적, 다른 세대와 소통
레저관	일에 재미, 여가는 수단	여가 자체가 목적
차산처분	상속의식 강함	자신을 위해 먼저 사용
대인관계	경로당 등 노인끼리 교류	동호회 등 폭넓은 대인관계
생활	자녀중심	부부중심
사회활동	소극적인 사회생활	적극적인 사회생활

From Kim and Park, (2012). p. 332.

한 소비를 하며, 스스로를 위한 노후 준비를 하고, 가치관에 따른 브랜드를 선호하며, 필요에 의한 소비가 아닌 문화예술 및 여가활동 참여와 같이 개인의 즐거움을 위한 소비를 추구한다(Hwang, 2014). Kim and Lee(2008)의 연구에 따르면, 뉴실버세대 여성들이 스스로를 지각하는 연령은 실제보다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낮게 지각한다고 하였으며, 60대에서 성취·도전지향 라이프스타일과 외모관리 지향 라이프스타일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이처럼 뉴실버세대 여성들은 연소화 현상을 보이고 여유를 즐기며 젊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과 패션, 미용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최신 유행 스타일의 옷과 화장품 소비에도 적극적이라고 하였다(Jeong & Park, as cited in Kim, 2008). 또한, 뉴실버세대에게 나이를 강조하기 보다는 주관적 나이 즉, 그들의 젊음에 대한 욕구와 신체적 변화를 고려한 디스플레이와 상품, 시설 및 인적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뉴실버세대의 등장은 향후 시니어 계층의 특성변화를 의미한다고 하였다(Kim, 2015). 그러므로 실제 나이보다 자신을 젊게 인지하고 과거의 실버세대와 다른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며 여가활동을 즐기고 자립심이 강한 뉴실버세대 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하여 실증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3. 성공적 노화

뉴실버세대에게 있어 성공적 노화는 신체적 기능의 수준과 사회적, 심리적 적응의 수준이 높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상태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인생주기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에 경험하는 다양한 신체, 심리, 사회 변화에 잘 적응하고 적절하게 대처해 가는 과정이며, 성공적으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하였다(Kim & Shim, as cited in Yoon, 2015). 이러한 성공적 노화

는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 요건이며, 노년기 생애 영역의 모든 부분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건강한 삶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중년후기 여성의 노화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노년기를 앞둔 여성들은 신체적인 상실을 통해 마음의 노화를 가장 많이 경험하며, 신체와 마음의 불협화음이 지속되면서 딜레마에 빠지게 되기도 하며, 점차 노인임을 수용하고 건강관리, 자식으로 부터 홀로서기, 새로운 삶의 방식 발견 등의 전략을 세운다고 하였다(Kang, 2004). 이에 따라, 뉴실버세대 여성들은 뉴실버세대 진입으로 인한 신체적 및 심리적 노화 변화를 경험했을 수도 있고 이로 인해 뉴실버세대 이전과의 라이프스타일 및 의복스타일 역시 변화하였을 수도 있다고 예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뉴실버세대 여성들이 모든 부분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성공적 노화를 이룬 상태인지 여부를 고찰해야 할 것이다.

4. 뉴실버세대의 여가활동과 의복구매행동

여가활동은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여가활동으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는데, 정신적 여가활동에는 종교, 사교, 취미, 휴양, 교양, 학습활동이 포함되고 신체적 여가활동에는 실내 스포츠, 실외 스포츠 활동이 있으며, 사회적 여가활동에는 사회활동과 봉사활동으로 구성된다(Yoon, 2015). Yoon (2015)에 따르면 여가활동특성이 성공적 노화 인식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만족감과 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은 것은 노년기 여가활동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노년층에게 있어 여가활동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노년기 고독감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며 이는 외부활동에 집중되고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 지기 때문에 여가활동 시 의복은 매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도구이면서 자신감을 느끼게 해 주고 생활의 활력

Table 2. 라이프스타일과 의복구매행동 관련 연구.

선행연구(년도)	연구 결과
Chae(1997)	50-60대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을 유형별로 특성을 정리한 결과, 60대는 외모나 물질에 대한 관심은 적지만 지역봉사, 취미활동,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은 여가활동형과 남편이나 자녀들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집안 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는 전통적인 가정주부형인 소극적 가정지향형이 높게 나타났고 50대와 60대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난 집단은 쇼핑을 즐기고 외제나 유명상표를 선호하며 선도적인 구매양상을 보이는 과시적 소비지향형으로 나타남
Kim and Kim(2004)	중·노년층의 의복추구이미지를 알아본 결과, 60대는 단정 깔끔한, 실용적인, 젊어 보이는, 품위 있는 의복이미지를 추구하고, 향후 노년이 되었을 때의 추구이미지는 공통적으로 우아한, 고급스러운, 품위 있는 이미지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Kim and Park(2012)	6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의복추구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품위성, 단정성, 매력성, 활동성, 활력성의 5개의 요인으로 분류됨
Im(2014)	예비노년층을 대상으로 자기 효능감과 외모관심이 외모관리행동과 의복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외모관심도에는 신체적 자기 효능감이, 외모관리 행동에는 사회적 자기 효능감이, 의복구매행동에는 자기 조절 효능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노년에 대한 인지변화가 신체적·사회적·심리적 변화의 순서에 따른다는 사실과 연결됨을 밝힘

소가 될 수 있으면서(Chang, 2006), 매력적인 의복은 중년층보다 오히려 고령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하여 사기를 높이고 자아 확신을 주어 사회적 수용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Hom & Gurel, as cited in Im, 2014). 이에 따라 뉴실버세대의 여가활동을 포함한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성이 있으며, 뉴실버세대에게 있어 특히 의복이 심리적 안정감 및 자신감을 부여하는 도구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이프스타일과 의복구매행동 관련 선행연구들은 <Table 2>와 같다.

이와 같이 뉴실버세대 관련 연구들은 이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심층적으로 알아보고 이해하지 않은 수준에서 이들이 추구하는 의복추구이미지나 의복구매성향에 대부분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심층 면접을 통해 뉴실버세대 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통해 여가활동 수준을 우선적으로 알아본다. 노년기의 여가활동은 고독감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며 외부활동에 집중되고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 지기 때문에 여가활동 시 의복은 매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그들이 주로 착용

하는 의복스타일과 여가활동 시와 평상시 의복스타일의 차이유무, 그리고 뉴실버세대 이전과의 의복스타일 변화와 그 이유에 대하여 심층면접으로 뉴실버세대 여성들의 의복스타일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대한민국 시니어 리포트(Kyobosaengmyung & Seniors partners, 2011)와 Kim and Lee(2008)의 연구에서 저소득층은 운동과 취미생활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고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패션과 외모 가꾸기에 투자 비중이 높았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산층 이상의 경제력이 있는 뉴실버세대 여성으로 고학력, 연금, 저축, 부동산 등 소득이 있으며, 현재 자녀와 같이 살지 않으며, 여가활동을 즐기고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하며, 노후 생활에 대한 관심이 많은 뉴실버세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문화소비를 하고 백화점에서 의복쇼핑을 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면접 대상자들은 연령과 거주 지역, 쇼핑장소를 기준으로 목적표집과 스노우볼 모집법을 병행하여 모집

Table 3. 심층 면접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대상자	나이/거주 지역	직업
A	69세, 대구 수성구 거주	자영업
B	65세, 대구 수성구 거주	주부
C	72세, 대구 수성구 거주	주부
D	69세, 대구 수성구 거주	주부
E	65세, 대구 수성구 거주	자영업
F	65세, 성남시 분당구 거주	주부
G	68세, 성남시 분당구 거주	주부
H	70세, 춘천/서울 강남구 거주	주부
I	71세, 서울 서초구 거주	주부

Table 4. 심층 면접 질문의 구성과 내용.

면접 내용	질문의 예시
라이프스타일 및 의복스타일, 외모관리	<p>▷ 건강관리</p> <p>- 건강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p> <p>▷ 채테크</p> <p>- 현재 어떤 채테크를 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하였습니까?</p> <p>▷ 여가, 사회/봉사활동</p> <p>- 평소 어떤 여가활동을 하고 있습니까?</p> <p>- 참여하고 있는 사회단체 혹은 봉사활동이 있습니까?</p> <p>▷ 의복스타일</p> <p>- 평소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으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p> <p>- 평상 시 의복과 여가활동 시 의복을 달리 입으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p>
뉴실버세대 이전과의 심리적, 신체적 변화	<p>- 10년전과 비교하여 신체적으로 느끼는 변화가 있습니까?</p> <p>- 10년전과 비교하여 심리적으로 느끼는 변화가 있습니까?</p> <p>- 실제 나이를 떠나서 본인이 인지하는 본인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p>
뉴실버세대 이전과의 라이프스타일, 의복스타일 및 외모관리 변화	<p>- 10년전과 비교해 건강관리에 변화가 생겼습니까? 생겼다면 어떻게 생겼습니까?</p> <p>- 10년전과 비교해 여가활동 및 문화생활에 변화가 생겼습니까? 생겼다면 어떻게 생겼습니까?</p> <p>- 10년전과 비교해 의복스타일에 변화가 생겼습니까? 바뀌었다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p> <p>- 10년전과 비교해 외모관리에 변화가 생겼습니까?</p>

하였고 서울, 경기, 대구 등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65-75세 여성 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면접 대상자 9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3>과 같다. 심층 면접에 들어가기 전 본 연구의 주제와 의의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녹취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심층 면접에 사용된 라이프스타일 문항은 Choi et al.(2011), Yoon(2015), Chae(1997) 연구를 토대로 재구성하였으며, 노화 관련 문항은 Kim(2007)를 토대로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Table 4). 대상자의 답변을 좀 더 자세히 얻기 위하여 구 체적이고 분석적인 질문을 다시 묻는 레더링 기법

(Laddering research)을 이용하여 각각도로 질문하였다. 자료 분석은 내용 보존의 정확성을 위하여 녹취한 파일을 면접 대상자가 표현한 그대로 빠짐 없이 오픈 코딩하여 비교 검토하였다. 응답자가 언급한 중요 어휘와 문장들을 추출해 유형화시키는 작업을 통하여 정리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뉴실버세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과

의복스타일을 심층 면접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뉴실버세대의 라이프스타일

뉴실버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건강관리, 재테크, 여가활동 및 사회/봉사활동 차원에서 각각도로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1) 건강관리

뉴실버세대 여성들은 대부분 건강 및 기능의 수준이 높은 편으로 아직까지는 건강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운동은 가벼운 수준으로 워킹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고 그 외에는 헬스, 스포츠 댄스 등도 한다고 하였다. 건강체크는 지병이 있지 않은 경우 대다수가 2년에 한번 받고 건강한 식습관으로 특별한 관리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졌다.

“규칙적인 운동은 하지 않고 있고 일주일에 1, 2번 워킹 정도.. 식습관을 통해서만 조금 하는 편이고 기름진 음식을 원래 좋아하지 않아 채식위주의 식사를 하고 있다. 건강체크는 2년에 한 번씩 종합건강검진 받는 수준” (대상자 A, 69세, 대구 수성구 거주)

“틈나는 데로 야산 같은 데 걷고 그러지 걷는 거... 몇 년 되었어요 거의 10년 정도 거의 매일 했었어요 한 1시간 반 정도..(건강체크)국민건강 나 오는 거는 열심히 하죠 주로 2년에 한번, 중간에 혈액으로 하는 거 몇 가지 그런 거 하고” (대상자 G, 68세, 성남시 분당구 거주)

“건강관리는 뭐 일주일에 운동 2, 3번 정도 하고 운동 스포츠댄스 같은 거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스포츠댄스 한지는 오래 되었어요 한 15년 정도.. 여기 문화센터 아카데미에서 한다. 건강체크는 2년에 한번씩” (대상자 I, 71세, 서울 서초구 거주)

2) 재테크

뉴실버세대 여성들 중, 본인 또는 남편이 현재까지 경제활동을 하는 비중이 절반이상이었으며, 그 외 연금으로 현재 생활 중이거나 부동산 임대 수익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보유하고 있는 재테크는 20-30년 전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노후 준비를 마친 상태였으며, 이제는 재테크도 활발한 단계를 지나 정리 단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여성들 모두 현재 자식들의 도움 없이 생활하고 있었으며, 절반 이상은 여전히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 뉴실버세대는 경제력과 구매력을 가진 세대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과거 실버세대의 특징이었던 자녀에게 의존적이며 자녀중심적인 생활과는 확연히 대조적으로 바뀐 라이프스타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테크는 30-40대에는 몰랐고 50대부터 시작했다. 부동산, 보험 조금, 주식 조금, 예전에 들어둔 보험 정도.. 지금 나이는 70이 가까우니까 들 수 있는 새로운 보험이 없고, 주식도 이제는 정리해야지 부동산도 경제활동이 예전만큼 안 활발하니까 새로 시작하는 건 없지.” (대상자 A, 69세, 대구 수성구 거주)

“나는 전혀 경제활동 하지 않고 남편만 한다. (자식들이) 절대 기대지 않으면 좋겠다. 아직까지는 내가 좀 주고 있죠” (대상자 B, 65세, 대구 수성구 거주)

“주식 이런 거는 전혀 안하고 우리는 지금 임대, 임대업가지고 생활하고 우리 생활 나머지를 애들한테 좀 도와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은 대개 한 30대-40대 사이에 한 것 같아.” (대상자 H, 70세, 춘천/서울 강남구 거주)

3) 여가활동 및 사회/봉사활동

뉴실버세대 여성들의 여가활동 종류는 운동, 중

교활동, 봉사활동, 여행, 친목모임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친목모임의 종류는 다양한 형태를 보였고 뉴실버세대 여성들은 시간 여유가 있을 때마다 국내의 여행을 다니고 있었다. 이를 통해 뉴실버세대 여성들은 '나' 스스로를 위한 소비 경향 및 즐거움을 위한 여가형태의 소비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문화소비의 수준도 다양한 형태를 보였고 영화 관람이 가장 선호하는 문화활동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활동으로 다수의 뉴실버세대 여성들이 봉사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냥 여행할 수 있으면 여행하고 친구들 하고 만나서 놀고 가고 싶은데 가고...친목모임은 자주, 한 달에 한 4번 내지 5번, 영화는 잘 봐요 요즘에 영화보기가 너무 쉽잖아 예매해놓고 그냥 가면 되니까 서울에 전시보러도 오고 나는 해외 일 년에 3번 내지 4번 가려고 하고 봄, 가을로 국내여행은 뭐 자주” (대상자 H, 70세, 춘천서울 강남구 거주)

“교회에 맡고 있는 일이 많아서 교회활동이 여가활동이다...교회에서 하는 탁구모임에 들어가 있고 일주일에 화요일 한번 만난다. 사회/봉사활동은 ‘홀트’라든가 ‘작은 자아의 모임’으로 요양원에 가는 활동, 한 달에 1번 정도 가고 일 년에 1번씩 큰 행사있을 때 참여한다. 주변에 모두가 음악(악기)하는 사람들이라 티켓을 주면 열심히 간다. 최근에 첼로 독주를 다녀왔다. 여행은 건강할 때 많이 갈려고 애를 쓴다. 1년에 2번정도 해외 나간다.” (대상자 B, 65세, 대구 수성구 거주)

“친목모임은 너무나 자주 하지 일주일에 2, 3번씩...운동모임도 있고 한 달에 두 번 차 모임있고 등산모임 또 따로 있고 맥주마시는 맥주모임도 있고 뭐 그렇지. 영화는 계속해서 본다. 일주일에 1번정도 보고 그림보러 가고 남편이랑도 가고 친구랑도 가고 언제는 혼자도 가고” (대상자 F, 65세, 성남시 분당구 거주)

이처럼 뉴실버세대 여성들은 잦은 국내외 여행을 다니는 등 여유로운 여가활동형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고 있었고 이는 선행연구(Riche, as cited in Gunter, 1998/2010)에서 뉴실버세대는 건강과 돈을 모두 갖춘 경향을 보였고 휴일, 여행과 같은 재화와 서비스에 잠재적 수익성을 지닌 세분시장임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현재 뉴실버세대 여성들은 다양한 종류의 여가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으로 여가활동적 의복스타일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고 그런 의복스타일을 필요로 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2. 뉴실버세대 이전과의 변화 - 심리적 및 신체적 노화 측면

뉴실버세대 이전인 10년 전과의 변화를 심리적, 신체적 노화 측면에서 알아본 결과, 심리적 노화에 따른 변화에서 여성들은 10년 전과의 변화를 전혀 못 느낀다고 하거나 자신감이 저하되거나 종종 우울감이 든다 등 이전과의 심리적 노화를 느끼기도 함을 밝혔다. 심리적 변화는 일부 여성들만 겪어 긍정적인 반응이 더 많이 나타났다. 하지만 신체적 노화에 따른 변화는 뉴실버세대 여성들 모두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10년 전과 비교하여 신체적 노화를 부정하지 않고 신체 노화에 대해 불안함이 아닌 수용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실버세대 여성들 중 일부 여성들을 제외하고는 심리적인 노화를 경험하기에 앞서 외모의 노화와 신체 기능 저하와 같은 신체적인 노화의 수준까지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빨리 지치고 피로하고 외모도 많이 늙었죠...마음만 40대라는 거지 건강과 기능저하는 느낀다. 심리적인 변화는 없다. 하지만 변한 모습에 대해 애달지가 않다. 속상하다던가” (대상자 B, 65세, 대구 수성구 거주)

“아무래도 배가 조금 허리가 조금 늘어나고 바지허리를 전혀 안내다가 2년 전에 이만큼 됐다. 2년 전부터 그게 다야. (심리적인 변화는) 못 느끼지.” (대상자 E, 65세, 대구 수성구 거주)

“몸에 변화도 느꼈지...이제는 좀 저하되었지. 조금 많이...그전에는 자신감 있게 선택을 해서 입었다면 편한 것만 찾게 되고...(신체적 변화)조금 젊지 중부지방이 조금 붙어났지. (심리적 변화)위축되지 우울증 온 것도 같고 집에서 혼자 있으면 그래 밖으로 나오고 그래 사람이 다운되지.” (대상자 G, 68세, 성남시 분당구 거주)

“기능이야 많이 뭐 뒤쳐졌지. 외모는 늙었잖아 피부에 주름이 많이 생겼어. 욕심내는 게 없으니까 훨씬 더 편안해지는 것 같아. 책임도 없어지고 자식들 걱정도 없잖아. 내가 더 노력한다고 해서 더 얻어지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현재만 유지하자 지금만큼만” (대상자 H, 70세, 춘천서울 강남구 거주)

성공적으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모든 부분에서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하였는데, 뉴실버세대 여성들은 현재 건강 및 기능의 수준과 사회적 적응의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가 크고 안정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즉, 본 연구에서 확인한 뉴실버세대 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심리적 및 신체적 변화에서 이들은 삶의 전반에서 안정적이며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 성공적 노화를 이룬 상태로 나타났다.

3. 뉴실버세대 이전과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의복스타일 및 외모관리 변화

뉴실버세대 이전과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알아본 결과, 여가활동에서 가족의 라이프스타일 지 등의 변화로 친목모임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응

답과 더 증가하거나 변함이 없다는 응답도 동등하게 나타났다. 여가활동 중, 여행은 응답자 모두 뉴실버세대 이전에 비해 더 많이 간다고 답하여 과거에 비해 가족 및 자신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심리적과 신체적으로 더 여유롭고 여가지향형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을 위한 시간과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는 ‘YOLO(You Only Live Once)족’ 즉, 한번 뿐인 인생을 즐기자는 현상이 뉴실버세대에 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여가활동의 변화는 더 많이 해요. 그전엔 바쁘고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지금은 훨씬 시간만 나면 어디를 갈려고 하고 즐기려고 하고 남하고 소통하려고 하고 많이 배우고 있죠 가까운 데는 자주 가고” (대상자 I, 71세, 서울 서초구 거주)

“별로 안 바뀌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고 있다. 그때는 (여행) 전혀 안 갔고 성지순례 한번 간 후로 서유럽가고 그 후로 올해 미국가고 이제 또 가겠지...여행을 확실히 많이 간다.” (대상자 D, 69세, 대구 수성구 거주)

“오히려 지금이 더 여유로워졌다. 그때는(10년 전) 애들 때문에 내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편안하게 뭐든지 할 수 있고...10년 전에는 (여행은)일이 있으면 남편 따라 갔지 갈려고 가지는 않았지 시간이 없었어. 친목모임은 오히려 지금 줄이는 편이다. 꼭 하는 것만 하고 예전에는 친구모임도 더러 있고 동창모임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안 해요.” (대상자 B, 65세, 대구 수성구 거주)

뉴실버세대 여성들의 의복스타일과 외모관리를 알아본 결과, 의복스타일은 일부 여성들은 유행을 따르기도 한다고 하였지만 대부분은 고려하지 않으며, 클래식하고 단정한 스타일을 추구하며 착용시 편안함을 고려한다고 하였다. 착용하는 패션브랜드는 대부분 해외유명브랜드의 비중이 컸으며,

이들은 어느 특정 브랜드에 국한시키지 않고 다양한 범위의 브랜드를 착용한다고 답해 의복 선택에 있어 안목을 갖추고 있으며, 패션에 여전히 관심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의복을 구매할 때 필요에 의한 구매보다 미를 추구하는 의복 쇼핑 성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특별한 행사나 종교활동을 제외하고는 캐주얼 위주의 옷을 선호하고 있었는데, 이는 Kim and Park(2012)의 연구에서 밝힌 안정성과 활동성을 추구하는 의복 이미지로 나타난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는데, 이는 유행에 상관없이 오래 입을 수 있어 경제적인 장점과 사회생활에 있어 튀지 않고 융합되는 사회적 장점을 가진 이유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평상시와 여가활동 시 의복을 동일하게 착용한다는 응답과 다르게 착용한다는 응답 중, 다르게 착용한다고 응답한 여성들의 비중이 더 컸다. 이는 여성들이 TPO에 맞게 의복 착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모관리의 경우, 체형관리 외에는 대부분 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슬림한 체형을 추구하지만 얼굴관련 노화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딱 정해진 건 없어 유행은 따르더라도 기본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스타일. 국내, 해외브랜드 가리지 않는다. 유행이나 체형커버가 아닌 소재 그때그때 마음에 드는 게 있을 때 충동구매한다. 평소 드레시한 옷을 입지 않으니까 단지 잔치, 결혼식이나 특별한 행사 때만 다르게 입는다.” (대상자 D, 69세, 대구 수성구 거주)

“옷을 좋아하니까 디자인, 소재보고 첫째 내 몸에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거...그때그때 보이면 사지 때에 따라 내 눈에 띄는 거. 여가활동 시와 평상시 의복을 달리 입는다. 운동할 때는 운동복, 활동할 때는 활동하기 좋은 거, 교회 올 때는 어느 정도 정장스러운 거” (대상자 E, 65세, 대구 수성구 거주)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는 일이 많잖아요 정장이 많다. 여행갈 때만 캐주얼한 옷을 입게 되지 평소에는 잘 안 입어요 해외브랜드 질센데 즐겨 입는다. 군더더기 없고 단순하고 깔끔하고 오래 입어도 질리지 않는...디자인과 색상을 제일 중요시 한다. 그리고 유행을 안타서 오래 입을 수 있다. 계절에 따라 필요로 할 때 나가서 사는 편이다. (여가활동 시와 평상시 의복이) 크게 벗어나지 않고 주말에는 교회를 가야 해서 더 단정하게 입는다.” (대상자 B, 65세, 대구 수성구 거주)

뉴실버세대 이전과의 의복스타일 및 외모관리의 변화를 알아본 결과, 현재 뉴실버세대 여성들은 오래 전부터 습관화된 체형관리를 통해 대부분 여성들이 10년 전과 비교해 체형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의복스타일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의복스타일이 변화한 소수 케이스는 살이 찌서 불편함을 느껴 스타일이 바뀌었음을 이유로 들었으며, 멋스러운 옷보다 편안한 옷 위주로 스타일이 바뀌었다고 하였다. 체형 및 외모관리 역시 대체로 10년 전과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형변화가 생긴 케이스는 긴장과 운동을 이전보다 더 많이 하게 된다고 하였다. 현재 뉴실버세대 여성들은 뉴실버세대 진입으로 인한 의복스타일이나 체형의 경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노화로 인한 의복스타일에 취향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나이가 들면서 인해 나이든 여성을 타겟으로 한 시니어 여성복을 입을 것이란 생각이 현재 연소화 욕구를 가진 뉴실버세대 여성들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50대와 60, 70대 의복스타일을 제안할 때 연령 간 디자인에 차이를 둘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바뀐 거 없다. 몸매가 막 그렇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10년 전 옷을 허리만 리폼해서 입어 지금 청바지도 그렇고 몸무게는 똑같이 유지하려고 하

고 있어. 옷도 많이 변화가 없고" (대상자 F, 65세, 성남시 분당구 거주)

"나는 10년 전 옷도 지금 입는데 살만 안 쪼면 살이 쪼서 그렇지. 10년 전이랑 브랜드랑 소재도 틀리지. 그때는 날씬했거든 원피스, 정장스타일이고 지금은 살이 쪼가지고" (대상자 C, 72세, 대구 수성구 거주)

"별로 생긴 것 같지 않아요 나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거 사니까 별로 그렇게 스타일이 (바뀌지 않고)...이세이미야케 같은 거는 10년 전부터 입기 시작했고 그전엔 안 입었어. 뭐 주름간 거 이상 하던데 이제 그런 것도 입으니까...이제 레이어드 하기 좋으니까 입고 겹옷은 아주 특이한 거는 못 입겠어." (대상자 H, 70세, 춘천/서울 강남구 거주)

"배 있는데 살찌기 시작해서 제일 안 빠지고 계속적으로 거기가 불편하고 옷을 사고 그리고 옷을 입으면 젊은 티가 안 나고 노인네 같은 티가 나는 것 같고...10년 전에는 멋스러운 옷 입으려고 그랬고 내 몸에 꼭 맞는 스타일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편한 거 그냥 걸치고 그때는 좀 블라우스 같은 것도 많이 입고 그랬는데 이제는 티셔츠 이런 니트 같은 거 입고...(체형관리와 외모관리에 변화는) 생겨요. 몸매가 확실히 틀려지니까 좀 더 긴장도 많이 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대상자 I, 71세, 서울 서초구 거주)

또한, 뉴실버세대 여성들의 현재 생리적인 나이를 떠나 심리적으로 인지하는 본인의 나이를 알아본 결과, 적게는 40대 중반에서 많게는 50, 60대로 인지하고 있으며, 대체로 본인의 실제 나이보다 5-15세 정도 낮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연소화 욕구를 가진 현재 뉴실버세대의 특성을 동일하게 반영하고 있었는데, 그러므로 뉴실버세대 여성들의 의복 착용에 있어서도 실제 생리적 나이보다 5-15세가량 젊은 의복스타일을 추구할 것이라 판단되었다. 이들은 뉴실버

세대 이후 연령대에 진입하더라도 단정하고 기본적인 디자인으로 편안한 조직과 소재를 고려하여 의복을 선택할 것이며, 가벼운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병행하여 계속해서 체형유지에 신경을 쓸 것이며, 체형 변화가 없는 한 의복스타일에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 추측되었다.

V. 결 론

본 연구는 기존의 실버세대와 다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을 지닌 65세-75세를 뉴실버세대라고 정의하고 뉴실버세대 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을 건강관리, 재테크, 여가활동 및 사회/봉사활동, 의복스타일 및 외모관리 차원에서 실증적 고찰을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뉴실버세대 이전과의 라이프스타일 및 의복스타일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뉴실버세대 여성의 라이프스타일 및 의복스타일에 대한 기초연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뉴실버세대 여성들은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직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나 재테크를 통해 노후 준비를 마친 상태이며, 경제적으로 자립심이 높은 상태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여가활동으로 문화소비의 수준이 높았다. 뉴실버세대 이전과 비교하여 라이프스타일 측면에서는 더욱 여가지향적으로 변화되었으며, 신체적 노화는 모두 인지하지만 심리적인 노화는 전혀 경험하지 않았거나 소수는 우울감, 편안해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뉴실버세대 여성들 모두 대체로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져 성공적 노화로 해석되었다. 노화에 대해 부정하거나 계속해서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의료적인 행위를 감행하는 등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Graham, as cited in Kim, 2007)고 보고한 결과와 달리, 현재 뉴실버세대 여성들은 노화에 대해 부정하지 않으

며, 불안감 또는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수용적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또, 현재의 본인의 생활과 모습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만족감을 보였다.

뉴실버세대 여성들의 의복스타일은 유행은 고려하지 않되 단정하고 기본에 벗어나지 않으며 편안한 의복스타일을 추구하고 평상시와 여가활동 시 의복을 때와 장소에 맞춰 다르게 착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의복쇼핑은 어느 특정 브랜드에 국한시키지 않고 충동적 구매를 하고 있어 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모관리의 필요성은 크게 느끼지 않으나 체형관리는 꾸준히 하고 있으며, 뉴실버세대 이전과의 의복스타일의 변화는 체형이 변하지 않는 한, 대부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실버세대 여성들은 실제 나이보다 인지적으로 본인을 더 젊게 생각하고 있어 이와 같은 연소화(down-aging) 현상으로 인하여 이전과 동일한 스타일을 추구하고 젊음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로 비추어졌다. 또한, 60대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여가활동형과 소극적 가정지향형, 과시적 소비지향형이 높았다는 연구결과(Chae, 1997)와 달리, 현재 뉴실버세대 여성들은 여가활동적이고 쇼핑을 즐기고 유명상표를 선호하는 과시적 소비는 유사하였으나 남편이나 자녀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전통적 가정주부형 성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사회·문화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전보다 현재의 자신의 삶에 즐거움을 추구하는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성향으로 바뀐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현재 뉴실버세대를 정리해보면,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며, 주체적인 소비를 하고 독립적이며,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문화소비를 하는 여가지향적 라이프스타일이다. 의복스타일에 있어서도 뉴실버세대 이전인 50대 때와 동일한 스타일을 추구하며, 의복구매에 있어서도 다양한 브랜드를 아우르는 안목을 갖추고 있

며, 체형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노화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며 긍정적인 성향을 가진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의류산업에서는 기존 40-50대의 여성복 실루엣에서 허리부분만 늘이는 디자인 조정을 해야 하며, 뉴실버세대의 주된 여가활동인 여행 및 문화센터, 친목모임에 착용하도록 이너웨어로는 티셔츠, 니트, 가디건 위주의 편안한 데일리웨어 제품과 함께 소재에 중점을 두고 선택하는 뉴실버세대임을 고려하여 부드럽고 천연소재인 면, 울, 캐시미어 위주로 소재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잦은 종교생활 및 결혼식 등의 행사에 참석하는 여성들을 위하여 정장스타일의 기본형 블레이저와 슬랙스, 무릎아래 기장의 스커트 또는 원피스, 트렌치코트 스타일을 제안하고 색상 역시 튀지 않는 블랙, 그레이, 베이지, 아이보리 색상을 메인으로 제안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뉴실버세대 여성들이 실제 인지하는 연령은 5-15세가량 낮게 지각하고 있으므로 5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한 의복스타일에서 벗어나지 않게 스타일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제한적인 연구대상자 범위로 심층 면접을 진행하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 사료되며, 좀 더 넓은 범위의 뉴실버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질적 및 양적 연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Ahn, M. S., Chung, S. J., & Kim, D. G. (2014). A comparative study on characteristics between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in senior model program: A focus on lifestyles, body satisfaction, self-esteem, physical self efficacy, and self-confidence in fashion coordination.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8(1), 66-79. doi:10.12940/jfb.2014.18.1.66
- Bae, Y. J., & Ha, J. S. (2017). A delphi study to forecast

- orientation, related to the cognitive age and the types of lifestyle of the female consumers in the elderly gener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2(11), 1726-1738.
- Kim, M. Y. (2015). Use of fashion information sources and fashion store selection criteria based on the subjective age of new senior consum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5(1), 91-107.
- Kim, S. W., Hong, S. M., & Park, H. J. (2006, July 27). [뉴실버가 뜬다]<上> “난 실버가 아니야” [[Be at an interval of new silver]<Upper edition> “I’m not silver”]. *donga-A.com*. Retrieved March 15, 2017, from <http://news.donga.com/3/all/20060727/8334046/1>
- Kim, Y. D., & Kim, M. Y. (2004). A study on clothing preference images of the middle-aged and elderly wom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8(6), 746-757.
- Kwon, J. D. (2012). 노인복지론 [Older people welfare]. Seoul: Hakjisa.
- Kwon, R. (2016, February 16). 서울시, 2026년 ‘초고령 사회’...노인 인구 20% 넘어 [Seoul, ‘superaged society’ by 2026...population of old people more than 20%]. *SBS NEWS*. Retrieved January 5, 2017, from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417112&plink=ORL&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SEND&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Kyobosaengmyung & Seniors partners. (2011). 대한민국시니어리포트 [Korea senior report]. Seoul: Seniors partners.
- Murata, H. (2005). 시니어비즈니스: 미국과 일본의 선진국형 실버산업에서 배우는10가지 성공전략 [(The)Business of aging: 10 successful strategies for a diverse market] (Lee, W. J., Trans.). Paju: Nexusbook. (Original work published 2004)
- Seo, S. H. (2004). *A study on expanded silver consumers market and marketing strategies of silver industry in Korea*. Unpublished masters's thesis, Yeungnam University, Daegu.
- Shin, K. H., Kim, B. S., Kim, J. Y., Lee, S. M., Jeong, J. Y., Lee, J. A., Jeong, J. H., Park, M. S., Lee, W. J., Lee, W. S., & Kim, K. (2012). 고령화시대 삶의 패러다임 [Life paradigm of aging era]. Seoul: Korea University Press.
- Webley, P., Young, B. M., Lea, S. E. G., & Burgoyne, C. B. (2009). 라이프 심리학 [The economic psychology of everyday life] (Kim, J. J., Trans.). Seoul: Dasan 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2002)
- Yoon, J. W. (2015).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leisure activity and leisur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and successful aging*. Unpublished masters's thesis, University of Seoul, Seoul.
- Chae, J. M. (1997). The various types of life style of women in their 50's and 60's and clothing purchase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Chaney, D. (2004). 라이프스타일 [Lifestyles] (Kim, J. R., Trans.). Seoul: Ilsinsa. (Original work published 1996)
- Chang, A. H. (2006). Clothing design preference of silver generation women: Focus on age 60 and mor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lothing Industry*, 8(5), 496-504.
- Choi, N. H., Ahn, H. S., & Lee, S. M. (2011). Comparison of health belief levels and health behavior practices according to lifestyle among adults residing in Seoul. *Korean Journal of Community Nutrition*, 16(6), 683-696. doi:10.5720/kjcn.2011.16.6.683
- Gunter, B. (2010). 노인 소비자의 이해 [Understanding the older consumer] (Sim, Y., Trans.). Seoul: Sigma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98)
- Hwang, S. S. (2014). *A qualitative change study on silver consumer market according to silver generations' expenditure variation*. Unpublished masters's thesis, Incheon University, Incheon.
- Im, K. B. (2014). The effect of self-efficacy and appearance interest on appearance management and clothing purchase behavior of new silver generation. *Journal of the Korea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16(2), 163-175.
- Kang, E. J. (2004). *Korean women's life experiences and adaptation to old a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Kim, C. H., & Park, J. O. (2012). A qualitative study on the pursued-image of clothes for new elderly women. *Journal of Digital Design*, 12(4), 329-241.
- Kim, E. H. (2007). A study anxiety about aging of middle aged and elderly wome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e Education*, 13(2), 192-202.
- Kim, H. N. (2009). *A study on the middle-aged depressed women's cognition of life experiences: Focus on the effect of experiences at home during the growing period*.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Kim, J. H. (1983). 대도시 노인의 교육요구 조사연구 [A research study of education demand of senior citizen in a big city]. Unpublished masters's thesis, Dankook University, Seoul.
- Kim, J. S. (2008). A study on the marketing strategy related to the new elderly generation in the aging society. *Journal of Korea Design Forum*, 18(-), 273-288.
- Kim, J. S., & Lee, S. J. (2008). A study on the shopping

Lifestyles and Fashion Styles of New Silver Generation Women

Han, Sang Ji · Ha, Ji Soo⁺

Ph.D. candidate,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define a term new silver generation who are aged between 65-75 with different values and lifestyles. Lifestyles of new silver generation women were examined in terms of health care, investment technique, leisure activity and social service activity, as well as fashion styles and appearance management. This study also analyzes changes of lifestyles and fashion styles of pre-new silver generation and aims to provide a basic research on lifestyles and fashion styles of new silver generation women. For this study, 9 new silver generation women were recruited who were middle class and above and doing cultural consumption and clothing shopping in department stores. They were recruited by purposive sampling method and snowball sampling method by age, residential district, and shopping area.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new silver generation women had a healthy life habit and carried out economic activity or later life preparation was done through investments therefore they had high economical sense of independence. Also, they worked on various types of leisure activity thus culturally advanced. Secondly, compared to pre-new silver generation, their lifestyle was turned to more leisure orientated. New silver generation women were aware of physical aging but not psychological aging, a few of them had experienced melancholy or comfort but majority had never experienced. Thirdly, in case of fashion styles, new silver generation women pursued neat, basic and comfortable fashion styles without considerations of trends and they wore differently for ordinary and leisure activities depends on places. Changes of fashion styles were nonexistent compared to pre-new silver generation in so far as their figures were not changed and they cognized themselves younger than actual age therefore the down-aging phenomenon reflected desires of maintaining youth and the same fashion styles as pre-new silver generation.

Key words : new silver generation, lifestyles, leisure activity, fashion style, successful aging

